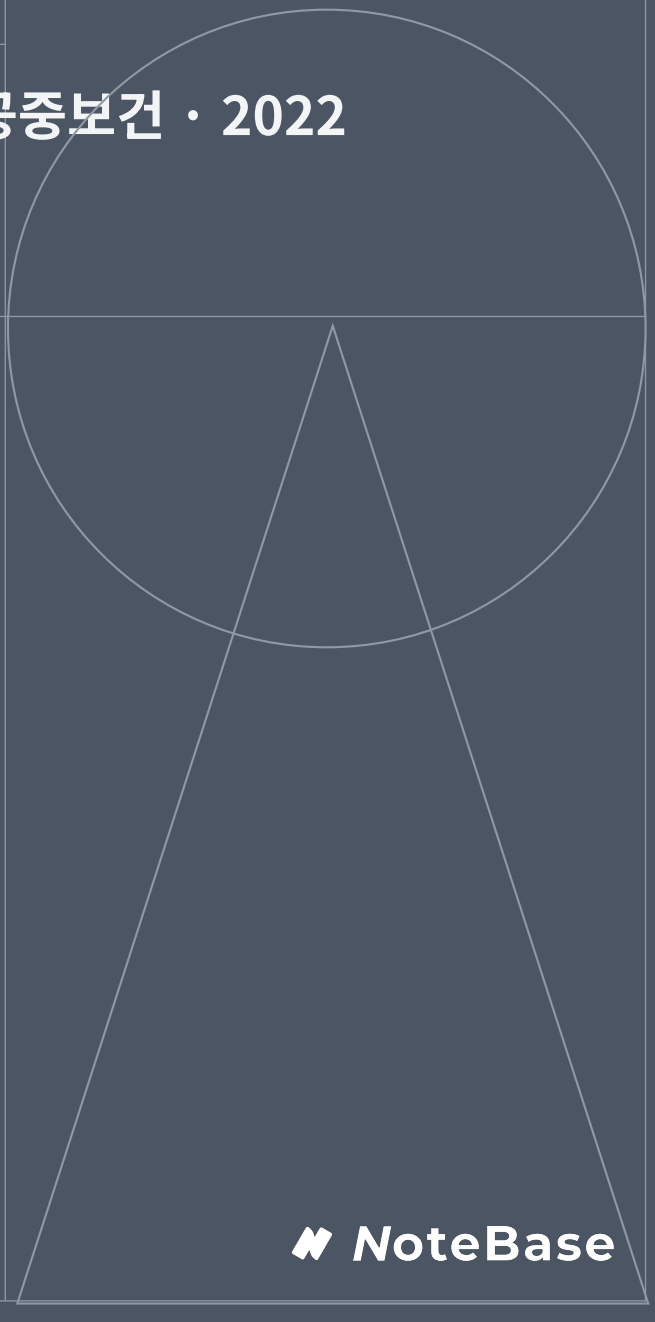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경력 · 공중보건 · 2022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경력 · 공중보건 · 2022

공무원/서울시/9급 경력 · 공중보건 · 2022

1. 1850~1900년 사이의 공중보건 확립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WHO가 발족되었다.
   ② 존 스노(John Snow)가 콜레라에 관한 역학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여 역학 조사의 좋은 사례가 되었다.
   ③ 세계 최초로 공중보건법이 제정되었다.
   ④ 페스트가 유행할 때 환자를 격리하였고, 최초의 검역법이 통과되어 검역소를 운영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중보건 확립기의 주요 사건이 1850~1900년에 일어났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중보건 확립기는 위생개혁과 역학조사가 본격화된 시기이다. 이 시기의 대표적 사건으로 1854년 존 스노의 콜레라 역학조사가 있으며, WHO 발족과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 제정, 초기 검역제도의 성립은 모두 해당 시기 밖의 사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WHO가 발족된 시점은 1948년이므로 1850~1900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WHO가 발족되었다'이며, 올바르게는 'WHO는 1948년에 발족하였다'이다.

② O — 존 스노는 1854년 런던의 콜레라 유행을 조사하여 환자 발생과 오염된 식수원의 관계를 밝혔고, 이는 역학조사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③ X — 세계 최초의 근대적 공중보건법으로 평가되는 영국의 공중보건법은 1848년에 제정되어 제시된 기간보다 앞선다. 틀린 표현은 '1850~1900년에 세계 최초로 공중보건법이 제정되었다'이며, 올바르게는 '영국의 공중보건법은 1848년에 제정되었다'이다.

④ X — 페스트 유행에 대응한 환자 격리, 검역 규정, 검역소 운영은 중세 말부터 형성되어 1850~1900년보다 훨씬 앞선다. 틀린 표현은 이러한 제도가 '1850~1900년에 최초로' 시행되었다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페스트 대응 격리와 검역제도는 1850년 이전부터 시행되었다'이다.

오답 포인트

각 사건이 공중보건의 발전에 중요하다는 사실만 보고 모두 같은 시대의 사건으로 판단하기 쉽다. 특히 ③의 1848년은 제시된 시작 연도인 1850년과 가까우므로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건의 중요성보다 먼저 연도를 대조한다. 1848년 영국 공중보건법, 1854년 존 스노의 콜레라 조사, 1948년 WHO 발족의 순서로 판단하면 1850~1900년에 해당하는 사건은 존 스노의 조사이다.

암기 포인트

1848 공중보건법 → 1854 존 스노 → 1948 WHO로 연결한다.

NoteBase

2. 공중보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중보건의 대상과 공중보건사업의 최소단위는 개인이다.
② 공중보건의 목적은 질병의 예방, 인간의 수명연장,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효율의 증진에 있다.
③ 공중보건은 감염성 질병뿐만 아니라 비감염성 질병의 관리도 포함한다.
④ 환경보건, 질병관리, 보건관리는 공중보건학의 분야에 포함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공중보건의 대상과 최소단위, 목적, 관리 대상 질병 및 주요 분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발문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을 고른다.

핵심 개념

공중보건은 지역사회의 조직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 집단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활동이다. 공중보건은 지역사회와 인구집단을 중심으로 하고, 임상의학은 개별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중심으로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대상과 최소단위는 개인'이라는 표현이 틀리다. 공중보건의 대상은 지역사회 주민 또는 인구집단이며, 최소단위도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이다. 개인을 주된 단위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임상의학의 관점이다.
② O — 공중보건은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효율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O — 공중보건은 감염성 질병의 예방·관리뿐 아니라 만성질환 등 비감염성 질병의 예방과 관리도 포함한다.
④ O — 환경보건은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을 다루고, 질병관리는 질병의 예방·통제를 다루며, 보건관리는 보건사업과 자원을 관리하므로 모두 공중보건학의 주요 분야에 포함된다.

오답 포인트

①의 '개인'은 의료와 건강 활동 모두에서 등장할 수 있어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공중보건을 임상의학과 구분하는 핵심은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인구집단을 기본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또한 ③에서 공중보건을 감염병 관리에만 한정하면 안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중보건의 기본 개념 문항에서는 '지역사회·인구집단, 질병 예방, 수명 연장, 건강과 효율 증진, 조직적 노력'을 핵심어로 확인한다. '개인 중심'이나 '감염병만 관리'처럼 범위를 좁힌 표현은 틀린 선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공중보건은 개인 치료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예방과 건강증진이다.

NoteBase

3. 공중보건의 핵심 지표인 영아사망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영아사망률이 높을수록 보건 수준이 높은 나라이고 영아사망률이 낮을수록 보건 수준이 낮은 나라이다.

② 영아사망률은 인구 집단의 연령 구성비에 크게 영향을 받는 지표이다.

③ 당해 출생 수 대비 당해 2세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④ 영아는 성인과 비교하여 환경 위생, 질병 등에 민감하기 때문에 보건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중요시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영아사망률의 산출 대상과 공중보건 지표로서의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영아사망률은 한 해의 출생아 1,000명당 생후 1년 미만 영아의 사망 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영아는 환경 위생, 영양, 감염병, 모자보건 및 의료서비스 수준에 민감하므로 영아사망률이 낮을수록 보건 수준이 높다고 평가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영아사망률이 높을수록 보건 수준이 높은 나라'이다. 영아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영아의 생존 여건과 모자보건 수준이 좋지 않다는 뜻이므로, 올바르게는 영아사망률이 낮을수록 보건 수준이 높은 나라이고 높을수록 보건 수준이 낮은 나라이다.

② X
틀린 표현은 '인구 집단의 연령 구성비에 크게 영향을 받는 지표'이다. 영아사망률은 출생아를 기준으로 생후 1년 미만의 사망을 측정하므로 전체 인구의 연령 구성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연령 구성비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아 국가나 지역의 보건 수준 비교에 유용한 지표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만 2세 이하의 영아'이다. 영아사망률의 대상은 생후 1년 미만에 사망한 영아이며, 분모는 같은 기간의 출생아 수이다. 올바르게는 당해 출생아 수 대비 생후 1년 미만 영아의 사망을 조사한다.

④ O
영아는 성인보다 환경 위생, 영양 상태, 감염병과 의료서비스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다. 따라서 영아사망률은 한 사회의 전반적인 보건 상태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중요하게 사용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영아사망률과 보건 수준의 관계를 정반대로 바꾸었고, ③은 영아의 연령 기준을 '생후 1년 미만'이 아니라 '만 2세 이하'로 넓힌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영아사망률 문항에서는 '출생아 1,000명당', '생후 1년 미만', '낮을수록 보건 수준이 높음'의 세 기준을 먼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생후 1년 미만 사망 수이며, 낮을수록 보건 수준이 높다.

NoteBase

4. 「의료법」상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하는 종합병원의 병상 규모는?
① 3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② 5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③ 1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④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의료법」상 종합병원이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하는 병상 규모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300병상 이하와 300병상 초과의 기준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종합병원은 「의료법」이 정한 병상 수와 필수 진료과목 등의 요건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핵심 구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은 법정 진료과목을 포함하여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기준은 300병상 이상이 아니라 300병상 초과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30병상을 초과한다는 것만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하는 종합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틀린 표현: 3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 올바른 표현: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② X
- 50병상 초과는 해당 진료과목 기준을 정하는 병상 규모가 아니다.
- 틀린 표현: 5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 올바른 표현: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③ X
- 종합병원은 원칙적으로 100병상 이상이어야 하지만, 100병상 초과가 곧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 진료과목의 기준은 아니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에는 별도의 7개 이상 진료과목 기준이 적용된다.
- 틀린 표현: 1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 올바른 표현: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④ O
-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종합병원의 최소 병상 기준인 100병상 이상과, 9개 이상 진료과목을 요구하는 300병상 초과 기준을 혼동하기 쉽다. 또한 300병상은 300병상을 초과한 경우가 아니므로 경계값 표현에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신건강의학과·치과와 9개 이상 진료과목이 함께 제시되면 300병상 초과를 연결한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는 7개 이상, 300병상 초과는 9개 이상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종합병원은 100병상부터, 9개 진료과목은 300병상 초과부터이다.

NoteBase

5.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 방법에서 소독, 매개곤충관리, 상하수도관리, 식품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함으로써 감염을 차단하는 가장 옳은 방법은?

① 감염력 감소 ② 환경위생관리
③ 병원소의 제거 ④ 감염원의 관리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감염병 예방 대책을 감염원 대책, 전파경로 대책, 감수성 숙주 대책으로 구분하고,
소독·매개곤충관리·상하수도관리·식품위생관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환경위생관리는 병원체가 감염원에서 새로운 숙주로 이동하는 전파경로를 차단하는 대책이다. 소독은 환경에 나온 병원체를 제거하고, 매개곤충관리는 곤충에 의한 전파를 막으며, 상하수도관리와 식품위생관리는 물·식품을 통한 전파를 예방한다.
감염원 대책은 환자·보균자 등 병원체를 배출하는 대상을 발견·격리·치료하여 병원체의 배출과 전파 가능성을 줄이는 조치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감염력 감소는 환자나 보균자를 조기에 발견·치료하는 등 감염원 측의 전염 가능성을 낮추는 대책이다. 틀린 표현은 '감염력 감소'이며, 제시된 방법은 '환경위생관리를 통한 전파경로 차단'이다.
② O — 소독, 매개곤충관리, 상하수도관리, 식품위생관리는 환경 속 병원체와 매개체를 통제하여 전파경로를 끊는 환경위생관리이다.
③ X — 병원소의 제거는 감염원을 찾아 격리·치료하거나 병원소 자체를 없애는 감염원 대책이다. 틀린 표현은 '병원소의 제거'이며, 제시된 방법은 '환경위생관리'이다.
④ X — 감염원의 관리는 환자·보균자 등의 발견, 신고, 격리 및 치료처럼 감염원을 직접 통제하는 대책이다. 틀린 표현은 '감염원의 관리'이며, 소독·매개곤충관리·상하수도관리·식품위생관리는 '전파경로의 환경위생관리'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소독이 병원체를 없앤다는 점만 보고 ③ 병원소의 제거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병원소는 병원체가 생존·증식하는 사람·동물 등의 근원이고, 환경에 배출된 병원체나 물·식품·곤충을 통제하는 것은 전파경로 대책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환자·보균자의 발견·격리·치료가 나오면 감염원 대책, 소독·물·식품·곤충 관리가 나오면 전파경로를 차단하는 환경위생관리, 예방접종이나 면역 증강이 나오면 감수성 숙주 대책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소독·곤충·물·식품은 환경을 관리하여 전파경로를 끊는다.

NoteBase

6. 〈보기〉의 ㈎,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이란 사람들의 건강을 개선시키고 자기 조정 능력이 증가하도록 이끌어가는 과정이며, 건강 잠재력의 개발과 발휘를 통해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또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 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	㈏		㈎	㈏
①	건강 발달	1차 예방	②	질병 예방	건강 수명
③	1차 예방	생명 공학	④	건강 증진	생활 습관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건강 잠재력을 개발하고 건강 수준을 높이는 과정인 건강 증진의 정의와, 건강 증진의 주요 대상인 생활 습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건강 증진: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개선하고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이끄는 적극적 과정이다. 건강 잠재력의 개발·발휘와 건강 수준의 향상이 핵심이다.

생활 습관: 식생활, 운동, 흡연, 음주처럼 개인이 반복하는 생활 방식이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긍정적 변화의 주요 대상이 된다.

질병 예방과 1차 예방은 질병 발생을 막는 데 초점을 둔 개념이고, 건강 수명은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을 뜻한다.

생명 공학은 생명 현상과 기술을 활용하는 분야이므로 생활 습관을 대신할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건강 발달'과 '1차 예방'이 모두 틀린 표현이다. 건강 잠재력을 개발하고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과정은 건강 증진이며,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건강 영향 요인은 생활 습관이다. 따라서 '건강 증진－생활 습관'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질병 예방'과 '건강 수명'이 모두 틀린 표현이다. 제시문의 적극적인 건강 향상 과정은 질병 예방보다 건강 증진에 해당하고, 건강 수명은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라는 결과 지표이지 변화시킬 건강 영향 요인이 아니다. 따라서 '건강 증진－생활 습관'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1차 예방'과 '생명 공학'이 모두 틀린 표현이다. 1차 예방은 질병 발생 전의 예방 활동을 가리키지만 제시문의 정의 자체는 건강 증진이며, 생명 공학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생활 방식이 아니다. 따라서 '건강 증진－생활 습관'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 건강 증진은 건강 잠재력의 개발과 발휘를 통해 건강 수준과 자기 조정 능력을 높이는 과정이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습관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한다. 두 빈칸에 모두 알맞다.

오답 포인트

'질병 예방'과 '1차 예방'은 건강 증진과 관련되지만 제시된 정의와 정확히 같은 말은 아니다. 또한 (나)는 건강 상태의 결과인 '건강 수명'이나 기술 분야인 '생명 공학'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강 영향 요인인 '생활 습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건강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 '건강 잠재력의 개발', '건강 수준 향상'이 함께 나오면 건강 증진으로 판단한다. 이어 식생활·운동·흡연·음주처럼 변화 가능한 건강 영향 요인을 묻는다면 생활 습관을 대응시킨다.

암기 포인트

건강 증진은 잠재력과 자기 조정 능력을 높이고, 생활 습관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건강 요인이다.

NoteBase

7. 동물 매개 감염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말라리아의 임상 증상은 오한, 고열 등이 있다.
② 일본뇌염은 주로 모기에 의해 감염되며 뇌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③ 발진티푸스는 사마귀에 매개되어 안구진탕, 시야 흐림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④ 페스트는 쥐벼룩에 의해 전파되며, 패혈증 등이 발생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동물 매개 감염병별 주요 매개체와 대표 임상 증상을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동물 매개 감염병은 병원체를 사람에게 옮기는 동물이나 절지동물인 매개체를 중심으로 구분한다. 말라리아는 얼룩날개모기, 일본뇌염은 작은빨간집모기, 발진티푸스는 몸니, 페스트는 쥐벼룩이 주요 매개체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말라리아는 발열과 오한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임상 특징이므로 옳다.
② O — 일본뇌염은 주로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이며,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면 뇌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옳다.
③ X — 틀린 표현은 '사마귀에 매개되어'이다. 발진티푸스는 주로 감염된 몸니가 매개하며, 고열·두통·발진 등이 나타난다. 올바르게는 '발진티푸스는 몸니에 의해 매개된다'이다.
④ O — 페스트는 감염된 설치류에 기생하는 쥐벼룩이 주요 매개체이며, 균이 혈류로 퍼지면 패혈증형 페스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③은 발진티푸스의 증상 일부를 그럴듯하게 제시하고 매개체만 '사마귀'로 바꾸었다. 증상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질병명과 매개체의 연결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를 '질병명—매개체—대표 증상'의 세 요소로 나누어 확인한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잘못 연결되면 틀린 선지이며, 발진티푸스는 '몸니'와 연결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말라리아－얼룩날개모기, 일본뇌염－작은빨간집모기, 발진티푸스－몸니, 페스트－쥐벼룩으로 기억한다.

NoteBase

8. 「학교보건법 시행령」상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진단
②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③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④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의사의 진단행위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응급처치 =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위급한 상태에서 상태 악화를 막기 위해 즉시 하는 처치이다.
진단 = 환자의 증상과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행위이다.

핵심 구분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타목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등을 규정한다.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이 규정에 열거된 보건교사의 의료행위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진단’은 보건교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틀린 표현: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진단
- 올바른 표현: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② O
-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③ O
-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는 허용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④ O
-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는 허용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응급’이라는 말만 보고 허용된다고 판단하기 쉽다. 시행령이 허용하는 것은 응급환자에 대한 ‘진단’이 아니라 ‘응급처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건교사의 의료행위는 치료·응급처치·악화 방지 처치·요양지도 및 관리인지 확인한다. 선지에 ‘진단’이 나오면 시행령에 열거된 허용행위인지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보건교사는 응급상황에서 ‘진단’이 아니라 ‘응급처치’를 한다.

NoteBase

9. 서양의 정신보건 발달과정에서 계몽주의와 휴머니즘의 영향으로 과학적 연구가 시작되고 프랑스의 피넬(Pinel)이 활약했던 시기는?

① 고대 시대 ② 그리스·로마 시대

③ 15세기 ④ 18세기 후반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서양 정신보건의 발달사에서 계몽주의·휴머니즘의 영향, 정신질환에 대한 과학적 접근의 시작, 피넬(Pinel)의 활동을 18세기 후반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피넬은 18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정신질환자를 단순히 감금하거나 억압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관찰과 인도적 처우를 중시한 인물이다. 이 시기에는 계몽주의와 휴머니즘의 영향으로 정신질환을 합리적·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흐름이 본격화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X

고대 시대에는 정신질환을 초자연적 힘이나 종교적 관점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강했으므로, 계몽주의·휴머니즘과 피넬의 활동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고대 시대'이며, 올바르게는 '18세기 후반'이다.

② X

그리스·로마 시대에는 히포크라테스가 정신질환을 자연적 원인으로 설명하려는 관점을 제시했지만, 계몽주의의 영향과 피넬의 활동보다 훨씬 앞선 시기이다. 틀린 표현은 '그리스·로마 시대'이며, 올바르게는 '18세기 후반'이다.

③ X

15세기는 피넬이 활동한 시기가 아니며, 문제에서 말하는 계몽주의·휴머니즘에 따른 정신보건 개혁이 본격화된 때보다 이르다. 틀린 표현은 '15세기'이며, 올바르게는 '18세기 후반'이다.

④ O

18세기 후반에는 계몽주의와 휴머니즘의 영향 아래 정신질환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인도적 처우가 강조되었고, 프랑스의 피넬이 이러한 개혁을 이끌었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휴머니즘’이라는 말만 보고 르네상스와 연결되는 15세기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에서는 계몽주의와 피넬이라는 단서가 함께 제시되므로 18세기 후반을 선택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신보건 발달사에서 ‘계몽주의·인도주의·피넬’이 함께 나오면 18세기 후반의 정신질환자 처우 개혁과 과학적 접근의 시작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피넬 = 18세기 후반 = 계몽주의·인도주의적 정신보건 개혁이다.

NoteBase

10. 스트레스 이론에서 〈보기〉의 (가)와 (나) 단계를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이 가장 강하지만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저항력이 약화된다. 스트레스에 익숙해지면 신체 반응은 낮은 수준에서 안정된다.

(나)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저항력이 떨어져 생체에 여러 증상이 나타나며 결국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가)	(나)
①	경고반응 단계	저항 단계
②	경고반응 단계	소진 단계
③	저항 단계	소진 단계
④	저항 단계	납득 단계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셀리에(Selye)의 일반적응증후군에서 경고반응 단계, 저항 단계, 소진 단계의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일반적응증후군은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의 비특이적 반응이 경고반응 단계 → 저항 단계 → 소진 단계로 진행된다는 이론이다.

경고반응 단계: 스트레스 요인을 처음 인식하여 신체가 즉각적으로 방어 반응을 보이는 초기 단계이다.

저항 단계: 특정 스트레스 요인에 적응하여 그 요인에 대한 저항력은 높아지지만, 다른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저항력은 약해질 수 있는 단계이다.

소진 단계: 스트레스가 장기간 계속되어 적응 에너지가 고갈되고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질병이나 기능 이상이 나타나는 단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를 경고반응 단계, (나)를 저항 단계로 연결한 것이 틀리다. (가)는 특정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이 강해진 상태이므로 저항 단계이고, (나)는 저항력이 저하되어 질병까지 나타나는 상태이므로 소진 단계이다. 올바르게는 '(가) 저항 단계, (나) 소진 단계'이다.

② X
(나)의 소진 단계는 맞지만, (가)의 '경고반응 단계'가 틀리다. (가)는 스트레스에 처음 반응하는 시점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익숙해져 반응이 안정된 시점이므로 저항 단계이다. 올바르게는 '(가) 저항 단계, (나) 소진 단계'이다.

③ O
(가)는 특정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가장 강해지고 신체 반응이 안정되는 저항 단계이며, (나)는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저항력이 떨어지고 질병이 유발되는 소진 단계이다. 두 단계의 연결이 모두 옳다.

④ X
(가)의 저항 단계는 맞지만, (나)의 '납득 단계'가 틀리다. 일반적응증후군의 표준 단계에 납득 단계는 없으며, (나)는 스트레스의 장기화로 저항력이 고갈되는 소진 단계이다. 올바르게는 '(가) 저항 단계, (나) 소진 단계'이다.

오답 포인트

(가)의 '스트레스에 익숙해진다'는 표현만 보고 단순한 적응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특정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지고 반응이 안정된다는 단서가 저항 단계의 핵심이다. (나)의 '오래 지속', '저항력 저하', '질병 유발'은 소진 단계를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처음 맞닥뜨려 즉각 반응하면 경고반응 단계, 특정 스트레스에 적응하여 버티면 저항 단계, 장기화로 에너지가 고갈되고 질병이 나타나면 소진 단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경고는 처음 반응, 저항은 적응하여 버팀, 소진은 고갈되어 질병이다.

NoteBase

11. 〈보기〉에서 동물병원소와 감염병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ㄱ. 돼지 – 일본뇌염	ㄴ. 말 – 라이(Reye)증후군
ㄷ. 양 – 레지오넬라증	ㄹ. 소 – 브루셀라증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동물병원소 또는 사람에게 감염을 이어 주는 주요 동물 숙주와 감염병의 연결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일본뇌염: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모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감염병이며, 돼지는 바이러스를 증폭시키는 대표적인 동물 숙주이다.
브루셀라증: 브루셀라균에 감염된 소·돼지·염소·양 등의 가축이 사람 감염의 병원소가 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라이(Reye)증후군: 주로 소아가 바이러스 감염 뒤 아스피린을 사용한 경우와 관련되는 급성 뇌병증·간기능 장애로, 말이 병원소인 감염병이 아니다.
레지오넬라증: 레지오넬라균에 오염된 냉각탑·급수시설 등의 물에서 생긴 에어로졸을 흡입하여 감염되며, 양이 대표 병원소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맞지만 ㄴ이 틀리다. 돼지는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증폭 숙주이지만, 라이증후군은 말이 병원소인 감염병이 아니다. 틀린 '말–라이증후군'은 '말과 라이증후군은 동물병원소–감염병 관계가 아니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 ㄱ의 '돼지–일본뇌염'과 ㄹ의 '소–브루셀라증'이 모두 옳다. 돼지는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증폭 숙주이고, 감염된 소는 브루셀라균의 동물병원소가 될 수 있다.
③ X — ㄴ과 ㄷ이 모두 틀리다. 라이증후군은 말이 병원소인 감염병이 아니며, 레지오넬라증의 주된 감염원은 레지오넬라균에 오염된 물과 그 에어로졸이지 양이 아니다. 틀린 짝은 각각 '말–라이증후군은 해당 없음', '오염된 수계 환경–레지오넬라증'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ㄹ은 맞지만 ㄴ이 틀리다. 소는 브루셀라증의 동물병원소가 될 수 있으나 말은 라이증후군의 병원소가 아니다. 틀린 '말–라이증후군'은 동물병원소와 감염병의 짝에서 제외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동물 이름과 질환명이 함께 제시되었다고 모두 인수공통감염병인 것은 아니다. 특히 ㄴ의 라이증후군은 감염병명처럼 보여도 말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질환이 아니며, ㄷ의 레지오넬라증은 양이 아니라 오염된 수계 시설과 에어로졸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질환의 전파 고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본뇌염은 돼지–모기, 브루셀라증은 감염 가축–사람의 연결을 확인하고, 라이증후군처럼 비감염성 증후군이거나 레지오넬라증처럼 환경 수계가 핵심인 질환은 동물병원소 짝에서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돼지–일본뇌염, 소–브루셀라증을 한 묶음으로 기억한다.

NoteBase

12. 〈보기〉의 설명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근로자의 연대책임을 강조한다.
ㄴ.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ㄷ. 무과실 책임주의에 기초하여 운영한다.
ㄹ.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임의보험으로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책임 원리, 보험료 부담 주체, 운영 주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근로자의 연대책임이 아니라 사업주의 무과실 재해보상책임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보장한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무과실 책임주의 =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업무상 재해라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원리이다.

핵심 구분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보험화한 국가 책임의 의무보험이다. 근로자에게는 보험료 부담 책임이 없고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보험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임의보험이 아니다. 따라서 ㄱ은 X, ㄴ은 O, ㄷ은 O, ㄹ은 X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 ㄴ)
ㄴ은 맞지만 ㄱ이 틀려 옳은 설명만을 묶은 조합이 아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연대책임'이 아니다.
틀린 표현: 근로자의 연대책임을 강조한다.
올바른 표현: 사업주의 무과실 재해보상책임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보장한다.

② X (ㄱ, ㄹ)
ㄱ과 ㄹ이 모두 틀리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연대책임에 기초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임의보험도 아니다.
틀린 표현: 근로자의 연대책임,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임의보험
올바른 표현: 사업주의 무과실 재해보상책임을 보험화한 국가 책임의 의무보험

③ O (ㄴ, ㄷ)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며, 업무상 재해 보상은 사업주의 과실 입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주의에 기초한다. 옳은 ㄴ과 ㄷ만을 묶었다.

④ X (ㄴ, ㄹ)
ㄴ은 맞지만 ㄹ이 틀리다. 산재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임의보험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국가 책임의 의무보험이다.
틀린 표현: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임의보험
올바른 표현: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

오답 포인트

ㄱ의 '연대책임'이라는 사회보험 일반의 인상과 ㄹ의 '보호 제도'라는 앞부분만 보고 맞다고 판단하는 것이 함정이다. 이 문항에서는 책임 주체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라는 점과 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산재보험의 특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사업주 전액 부담', '무과실 책임', '국가 책임의 의무보험'을 기준으로 각 문장을 판별한다. 근로자 책임이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틀린 설명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무과실로 보상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이다.

NoteBase

13. 산업재해의 발생상황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도수율은 연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몇 건의 재해가 발생했는가를 나타낸다.

② 강도율이란 근로자 1,000명당 발생하는 재해건수이다.

③ $\text{도수율} = \frac{\text{총 근로손실일수}}{\text{연 근로시간수}} \times 1{,}000{,}000$

④ $\text{강도율} = \frac{\text{재해건수}}{\text{연 근로시간수}} \times 1{,}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산업재해 지표인 도수율과 강도율의 의미 및 공식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도수율은 재해의 발생 빈도를 나타내며, 연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로 표시한다.
강도율은 재해의 심각도를 나타내며, 연 근로시간 1,000시간당 총 근로손실일수로 표시한다.

사용할 공식

도수율=재해건수연 근로시간수× 1,000,000
강도율=총 근로손실일수연 근로시간수× 1,000
도수율은 재해가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를, 강도율은 재해로 인한 손실이 얼마나 컸는지를 비교하는 지표이므로 각각 재해건수와 총 근로손실일수를 분자로 사용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 도수율은 연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발생한 재해건수를 나타내므로 옳다.

② X — '근로자 1,000명당 재해건수'라는 표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도수율이 연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를 나타내며,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천인율은 상시근로자 1,000명당 재해자수를 나타낸다.

③ X — 도수율의 분자를 '총 근로손실일수'로 두고 1,000,000을 곱한 것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도수율은 재해건수를 연 근로시간수로 나눈 뒤 1,000,000을 곱한다. 총 근로손실일수를 분자로 사용하는 지표는 강도율이며 이때에는 1,000을 곱한다.

④ X — 강도율의 분자를 '재해건수'로 두고 1,000을 곱한 것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강도율은 총 근로손실일수를 연 근로시간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한다. 재해건수를 분자로 사용하는 것은 도수율이며 이때에는 1,000,000을 곱한다.

오답 포인트

③과 ④는 도수율과 강도율의 분자 및 환산 배수를 서로 섞어 놓은 선지이다. 도수율의 '도수'는 발생 횟수이므로 재해건수, 강도율의 '강도'는 피해의 크기이므로 총 근로손실일수를 사용한다. 또한 도수율의 기준은 100만 근로시간, 강도율의 기준은 1,000근로시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지표가 빈도와 심각도 중 무엇을 나타내는지 확인한다. 빈도이면 재해건수와 1,000,000을 사용하는 도수율이고, 심각도이면 총 근로손실일수와 1,000을 사용하는 강도율이다. 근로자 1,000명당 재해자수를 묻는 경우에는 천인율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도수율은 '건수·100만 시간', 강도율은 '손실일수·1,000시간'이다.

NoteBase

14. 〈보기〉에서 설명하는 정수 처리 과정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 응집 물질을 가라앉혀 찌꺼기는 버리고 맑은 물을 보내는 곳
㈏ 깨끗하게 걸러진 물을 염소 소독한 후 가정으로 보내기 전 저장하는 곳

	㈎	㈏		㈎	㈏
①	침전지	정수지	②	여과지	배수지
③	여과지	정수지	④	침전지	배수지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정수 처리 과정에서 침전지·여과지·정수지·배수지가 각각 담당하는 기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응집 → 침전 → 여과 → 염소 소독 → 정수지 저장의 흐름으로 처리된다.
침전지는 응집된 물질을 가라앉혀 찌꺼기를 제거하고, 여과지는 침전 후 남은 미세한 불순물을 걸러 낸다. 이렇게 여과되고 소독된 깨끗한 물은 정수지에 저장된 뒤 공급된다.
이 순서인 이유는 침전으로 큰 응집물을 먼저 제거해야 뒤의 여과가 원활하며, 여과된 물은 소독을 거쳐 정수지에 저장되어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가)는 응집된 물질을 가라앉혀 찌꺼기와 맑은 물을 분리하는 침전지이고, (나)는 여과된 물을 염소 소독한 뒤 저장하는 정수지이므로 두 연결이 모두 옳다.
② X — (가)의 '여과지'와 (나)의 '배수지'가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가)는 침전지, (나)는 정수지이다. 여과지는 침전 뒤 남은 미세한 불순물을 걸러 내는 시설이고, 배수지는 정수를 공급 지역에 배분하기 위해 저장하는 시설이다.
③ X — (가)의 '여과지'가 틀렸다. 응집 물질을 가라앉혀 찌꺼기를 제거하는 곳은 여과지가 아니라 침전지이다. (나)의 정수지는 옳다.
④ X — (나)의 '배수지'가 틀렸다. (가)의 침전지는 옳지만, 여과되고 염소 소독된 물을 정수장에서 저장하는 곳은 배수지가 아니라 정수지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가라앉힌다’와 ‘걸러 낸다’를 혼동하면 침전지와 여과지를 바꾸기 쉽고, 둘 다 깨끗한 물을 저장한다는 점만 보면 정수지와 배수지를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염소 소독을 마친 물을 정수장에서 저장하는 곳이라는 표현이 정수지를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설명보다 동작을 먼저 대응한다. ‘응집물을 가라앉힘’은 침전지, ‘미세 불순물을 거름’은 여과지, ‘여과·소독한 물을 정수장에서 저장’은 정수지, ‘공급 지역으로 배분’은 배수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가라앉히면 침전지, 걸러 내면 여과지, 소독한 물을 모으면 정수지, 지역에 나누어 보내면 배수지이다.

NoteBase

15. 〈보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온열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공기 중에 포함된 수분의 양을 의미한다.
- 낮에는 태양열을 흡수하여 대지의 과열을 방지하고 밤에는 지열의 복사를 방지하여 기후조건을 완화시킨다.

① 하루 중 변화 곡선이 대체로 기온과 역관계를 보인다.
② 일반적으로 쾌적한 수치는 40~60%이다.
③ 수치가 너무 높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
④ 흑구 온도계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상대습도의 일변화와 적정 범위, 건강 영향, 측정 기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습도는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정도를 나타낸다. 상대습도는 현재 공기 중 수증기량을 같은 온도에서의 포화수증기량과 비교한 백분율이다. 기온이 오르면 포화수증기량이 커지므로 수증기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 동안 상대습도는 낮아지고, 기온이 내리면 상대습도는 높아진다. 습도는 건습구습도계 등으로 측정하며, 흑구온도계는 주위의 복사열 영향을 측정하는 기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하루 동안 기온이 높아지는 낮에는 상대습도가 낮아지고 기온이 내려가는 밤에는 상대습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대습도의 일변화 곡선은 대체로 기온과 역관계를 보인다.
② O — 일반적으로 쾌적한 상대습도 범위는 40~60%로 본다.
③ O — 상대습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땀의 증발과 체열 방출이 어려워지고 곰팡이·미생물이 증식하기 쉬워져 건강에 좋지 않다.
④ X — 틀린 표현은 '흑구 온도계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이다. 습도는 건습구습도계나 습도계로 측정하며, 흑구온도계는 습도가 아니라 복사열의 영향을 반영한 온도를 측정한다.

오답 포인트

습도와 온열환경이 함께 다뤄진다는 이유로 흑구온도계를 습도 측정 기구로 혼동하기 쉽다. ④의 핵심 함정은 측정 대상과 기구의 잘못된 연결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습도 문항에서는 먼저 '수증기의 정도'를 뜻하는지 확인하고, 상대습도는 기온과 대체로 반대로 변한다는 점을 적용한다. 측정 기구는 습도계·건습구습도계와 연결하고, 흑구온도계는 복사열과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상대습도는 기온과 반대, 습도는 건습구습도계, 복사열은 흑구온도계이다.

NoteBase

16. 직업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음성 난청이란 내이 코르티 기관의 신경말단 손상으로 인한 불가역적인 청력손실을 뜻한다.
② VDT증후군은 사무자동화로 생기는 질환으로 안정피로, 경견완증후군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③ 소음성 난청의 초기 단계에는 고주파인 8,000Hz에서부터 청력장애가 현저히 커지는 C5-dip 현상이 있다.
④ 잠함병이란 이상고압에 노출되었다가 정상기압으로 감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소기포가 혈전현상을 일으키는 건강장애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음성 난청, VDT증후군, 잠함병의 원인과 대표 증상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소음성 난청은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내이의 감각세포가 손상되어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며, 초기에는 약 4,000 Hz 부근의 청력저하가 두드러지는 C5-dip이 특징이다.
VDT증후군은 컴퓨터 등 영상표시단말기 작업으로 눈, 근골격계 등에 나타나는 증상군이다.
잠함병은 고압 환경에 있던 사람이 너무 빠르게 감압될 때 체내에 질소 기포가 생겨 발생하는 감압병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소음성 난청은 강한 소음에 의해 내이의 코르티기관에 있는 감각세포와 신경말단이 손상되어 생기는 비가역적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이다.
② O — VDT증후군은 사무자동화 및 영상표시단말기 작업과 관련하여 안정피로, 경견완증후군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직업성 건강장해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8,000 Hz에서부터'이다. 소음성 난청 초기의 특징적 청력저하는 약 4,000 Hz 부근에서 나타나는 C5-dip이며, 이후 소음 노출이 계속되면 인접 주파수대로 확대될 수 있다.
④ O — 잠함병은 고압 환경에서 정상기압으로 너무 빠르게 감압될 때 조직과 혈액에 녹아 있던 질소가 기포를 형성하여 혈관 폐색과 조직 손상을 일으키는 건강장해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C5-dip 자체는 맞게 제시하고 그 발생 주파수를 8,000 Hz로 바꾼 선지이다.
C5-dip의 대표 주파수는 약 4,000 Hz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직업병 선지는 원인과 대표 표적 장기 또는 특징적 수치를 연결해 판단한다. 소음은 내이 손상과 약 4,000 Hz의 C5-dip, VDT 작업은 눈의 피로와 경견완증후군, 급격한 감압은 질소 기포와 잠함병으로 연결된다.

암기 포인트

소음성 난청의 초기 특징은 4,000 Hz 부근의 C5-dip이고, 잠함병의 핵심은 급격한 감압에 따른 질소 기포이다.

NoteBase

17. 〈보기 1〉에 해당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 대개 경구로 전파되는 감염병이다.
- 사망률은 대체로 낮고 2차 감염은 흔하지 않다.
- 소화기 계통의 증상이 주로 발생한다.
- 계절의 영향은 받지 않으나 온도가 높을수록 병원체 활동이 활발하다.

〈보기 2〉

ㄱ. 장티푸스	ㄴ. A형 간염
ㄷ. 콜레라	ㄹ. 렙토스피라증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대변 등으로 배출된 병원체가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통해 입으로 들어오는 경구감염병과 다른 전파 경로의 감염병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장티푸스·A형 간염·콜레라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구감염병이다.
경구감염병은 소화기계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호흡기 감염병보다 2차 감염이 두드러지지 않으며, 기온이 높을수록 외부 환경에서 병원체의 증식과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
렙토스피라증은 감염된 동물의 소변에 오염된 물이나 흙이 손상된 피부 또는 점막에 닿아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따라서 주된 전파 경로가 경구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 장티푸스와 ㄴ A형 간염은 해당하지만, 같은 경구감염병인 ㄷ 콜레라가 빠졌다. 틀린 부분은 'ㄱ, ㄴ만 선택한 것'이며,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다.
② O — ㄱ 장티푸스, ㄴ A형 간염, ㄷ 콜레라는 모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매개로 전파될 수 있는 경구감염병이고, ㄹ 렙토스피라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X — ㄹ 렙토스피라증을 포함하고 ㄴ A형 간염을 제외한 것이 잘못이다. 렙토스피라증은 주로 감염 동물의 소변에 오염된 물·흙과 피부 또는 점막이 접촉해 감염되고, A형 간염은 분변-경구 경로로 전파된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다.
④ X — ㄹ 렙토스피라증을 포함하고 ㄱ 장티푸스를 제외한 것이 잘못이다. 렙토스피라증은 주된 전파 경로가 경구가 아니며, 장티푸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통해 전파되는 경구감염병이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오염된 물’이라는 공통점만 보고 렙토스피라증까지 경구감염병으로 묶는 것이 함정이다. 장티푸스·A형 간염·콜레라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먹어 감염되지만, 렙토스피라증은 오염된 물이나 흙이 피부·점막에 접촉하여 감염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감염원이 물인지보다 병원체가 몸에 들어오는 경로를 확인한다. ‘오염된 물·음식물 섭취’이면 경구감염병으로, ‘동물 소변에 오염된 환경과 피부·점막 접촉’이면 렙토스피라증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장티푸스·A형 간염·콜레라는 입으로, 렙토스피라증은 오염수와 피부·점막의 접촉으로 감염된다.

NoteBase

18. 생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은?

① 디프테리아 ② 홍역

③ 파상풍 ④ B형 간염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생백신으로 예방하는 감염병과 톡소이드·유전자재조합 백신으로 예방하는 감염병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생백신은 살아 있는 병원체의 독성을 약화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이다. 홍역 백신은 약독화 생백신이며, 디프테리아와 파상풍에는 독소를 무독화한 톡소이드 백신을 사용하고 B형 간염에는 유전자재조합 백신을 사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디프테리아는 생백신이 아니라 디프테리아 독소를 무독화한 톡소이드 백신으로 예방한다. 틀린 표현은 '생백신으로 예방'이며, 올바르게는 '톡소이드 백신으로 예방'이다.
② O — 홍역은 약독화한 홍역 바이러스를 이용한 생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다.
③ X — 파상풍은 생백신이 아니라 파상풍 독소를 무독화한 톡소이드 백신으로 예방한다. 틀린 표현은 '생백신으로 예방'이며, 올바르게는 '톡소이드 백신으로 예방'이다.
④ X — B형 간염은 생백신이 아니라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표면항원을 이용한 유전자재조합 백신으로 예방한다. 틀린 표현은 '생백신으로 예방'이며, 올바르게는 '유전자재조합 백신으로 예방'이다.

오답 포인트

네 질병 모두 예방접종 대상이라는 공통점만 보고 백신의 종류까지 같다고 판단하기 쉽다. 특히 디프테리아와 파상풍은 병원체 자체가 아니라 독소를 무독화한 톡소이드를 사용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질병 이름만 보지 않고 백신의 항원이 살아 있는 약독화 병원체인지, 무독화한 독소인지, 유전자재조합 표면항원인지 구분한다. 홍역은 약독화 생백신, 디프테리아·파상풍은 톡소이드, B형 간염은 유전자재조합 백신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홍역은 생백신, 디프테리아·파상풍은 톡소이드, B형 간염은 유전자재조합 백신이다.

NoteBase

19. 미세먼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로 머리카락 지름의 약 1/20~1/30 작은 크기이다.

②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를 착용한다.

③ 미세먼지는 지표면의 흙먼지와 화석연료의 연소과정 등에서 발생한다.

④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염증반응이 발생하면 천식, 호흡기계 · 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입자 크기 기준, 발생 원인, 건강 피해 및 행동 요령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미세먼지(PM10)는 지름이 10μm 이하인 입자상 물질이고, 초미세먼지(PM2.5)는 지름이 2.5μm 이하인 더 작은 입자상 물질이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지름의 약 1/20 ~ 1/30 정도로 매우 작아 호흡기를 통해 몸속 깊이 침투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10μm보다 작다'이다. 지름 10μm 이하라는 기준은 미세먼지(PM10)에 해당하며, 초미세먼지(PM2.5)는 지름이 2.5μm 이하인 입자이다. 따라서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μm 이하이고 머리카락 지름의 약 1/20 ~ 1/30 크기이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불필요한 외출과 야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에 맞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O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도 발생하지만 지표면의 흙먼지, 화석연료의 연소, 자동차 배출가스, 산업 활동 등에서도 발생한다.

④ O
미세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들어오면 염증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천식과 호흡기계·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또는 악화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①은 머리카락과의 크기 비교는 초미세먼지에 맞게 제시하면서 입경 기준만 PM10의 10μm로 바꾸어 놓았다. '미세먼지 10μm, 초미세먼지 2.5μm'의 기준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입자 크기 수치부터 확인한다. PM10 또는 10μm 이하는 미세먼지, PM2.5 또는 2.5μm 이하는 초미세먼지로 판단한 뒤 발생원·예방수칙·건강 영향을 검토한다.

암기 포인트

미세먼지는 10, 초미세먼지는 2.5이다. 숫자가 작을수록 입자가 더 작고 몸속 깊이 침투하기 쉽다.

NoteBase

20. 〈보기〉에 해당하는 보건교육 평가 유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교육 활동 단계에 따른 유형에 속한다.
- 보다 광범위하고 근원적인 수업 외적 학습 결함의 문제를 밝혀낼 수 있다.
- 교육 활동 시작 전 학습자의 학습 장애 요인, 지식 정도, 학습 동기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① 진단평가 ② 형성평가
③ 총괄평가 ④ 절대평가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교육활동의 어느 시점에 어떤 목적으로 평가하는지를 기준으로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진단평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수학습 정도, 지식 수준, 학습동기, 학습장애 원인 등을 파악하여 출발점을 정하는 평가이다.
형성평가: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습 상태를 점검하고 피드백하여 학습과 수업을 개선하는 평가이다.
총괄평가: 단원이나 학기 등 수업이 끝난 뒤 목표 달성 정도와 최종 성취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평가이다.
절대평가: 미리 정한 교육목표나 성취기준에 비추어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판단하는 평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진단평가는 교육활동의 시작 전에 학습자의 출발 상태와 학습장애 원인을 폭넓게 파악하는 평가이다. 보기의 세 진술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② X — '형성평가'가 틀린 표현이다. 형성평가는 수업 중 학습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평가이며, 보기처럼 수업 전에 학습자의 준비도와 장애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진단평가이다.
③ X — '총괄평가'가 틀린 표현이다. 총괄평가는 수업이 끝난 뒤 목표 달성 정도와 최종 성취를 판단하며, 보기의 올바른 평가 유형은 진단평가이다.
④ X — '절대평가'가 틀린 표현이다. 절대평가는 미리 정한 목표나 기준에 비추어 성취를 판단하는 방식이며, 보기의 올바른 평가 유형은 진단평가이다.

오답 포인트

보기의 '교육 활동 단계에 따른 유형'만 보고 진단·형성·총괄평가를 혼동하기 쉽다. 결정적 표현은 '교육 활동 시작 전'이며, 선수학습·지식 수준·학습동기·학습장애 원인을 알아본다는 내용도 진단평가를 가리킨다.
절대평가는 평가 시점이 아니라 미리 정한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평가 시점을 먼저 확인한다. 수업 전의 출발점과 원인 파악은 진단평가, 수업 중의 점검과 피드백은 형성평가, 수업 후의 최종 성취 판단은 총괄평가로 구별한다. 별도로 목표나 성취기준과 비교한다는 표현은 절대평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수업 전 진단, 수업 중 형성, 수업 후 총괄, 기준에 비추면 절대평가이다.

NoteBase